

“5월 기억하자”... 버스정류장 광고판에 5·18 홍보

5·18 NOW 기획단 프로젝트 ‘눈길’ 5·18민주묘지, 공원묘지 두 곳 정류장 광고판 40일간 사용권 계약

버스정류장, SNS 등 일상 속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알리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 전국에서 11명의 청년이 뜻을 모아 지난 2월 결성한 ‘5·18NOW기획단’이다. ‘5월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취지의 모임이다.

최윤현(36) 5·18NOW기획단 대표는 “광주, 서울, 부산, 청주, 전주, 순천 등 각 지역 청년들로 구성됐다”며 “5·18 관련 활동을 해 오던 이들은 아니지만, 늘 5·18 광주에 관심이 있었던 이들이다”고 소개했다.

기획단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지현(여·36·기획자)씨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광주 곳곳에 비치된 엽서에 글을 써 ‘오월 우체통’에 넣으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발송해주는 ‘오월 안부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목받았다. 지금은 5·18 NOW기획단 핵심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단은 지난 21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텀블벅’에 ‘일상에서 참여하는 518NOW 캠페인’을 올렸다.



5·18 40주년 기념 광고가 걸린 5·18 공원묘지 버스정류장 모습.

이 캠페인은 국립 5·18민주묘지, 5·18공원묘지 두 버스정류장 광고판을 5·18 40주년 기념 광고로 바꾸는 온라인 펀딩 프로젝트다.

캠페인 시작에 앞서 기획단은 지난 18일 두 버스정류장 광고판의 사용권을 계약했다. 이곳에는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40여일 동안 5·18민주항쟁 40주년 관련 캠페인 이미지가 걸린다.

펀딩 프로젝트는 광고판을 교체하고 후원자 리워드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인 200만원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프로젝트는 지

난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3시 기준 275명이 참여해 254만여원이 모였다. 프로젝트 성공 기준을 26%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최 대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5·18을 기억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5월 한달뿐 아니라 올 하반기 전기간에 광고를 실는 연장 계약을 진행 중이다. 계약 단위를 1년으로 늘리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5월 한달 동안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프로필 사진을 5·18 40주년 기념 이미지로 바

꾸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일상에서도 5월의 광주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그 날의 정신을 함께 이어나가자는 취지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에도 진행됐으며, 올해는 2가지 프로필 사진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 또 기획단 11명이 16~17일 광주에서 모여오는 5·18 관련 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포럼을 열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5·18 관련 행사나 전시, 영화, 책, 관광지 등을 알리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최윤현 대표(앞줄 맨 왼쪽) 등 ‘5·18now기획단’ 단원들이 지난 3월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5·18now기획단 제공)

예술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복권기금 사업평가 1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이 ‘2019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공익사업부문 1위를 차지했다.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2019년에는 66개 법정배분사업 및 30개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2019년 평가결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은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증진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우수’(공익사업부문 1위)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7년 동안 ‘우수’ 평가를 받으며 대표 문화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9년에는 전화 ARS 재충전 발급시스템을 도입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환경을 개선했고, 가맹점 확대 및 적시 안내를 통해 수혜자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윤재성 호연건설 대표,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는 지난 28일 윤재성 ㈜호연건설 대표이사(전남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약정회원)로 가입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을 기부 약정하면 회원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전남 곡성에서 토목건축자재 및 옥외시설 축조

관련 전문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 대표는 곡성에서는 3번째, 전남에서 95번째 회원이 됐다.

윤 대표이사는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가입을 결심했다”며 “고향의 복지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달의 5·18민주유공자에 고(故) 김춘례씨 선정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소장 안진형)가 5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김춘례 민주유공자를 선정했다.

고(故) 김춘례 민주유공자는 1962년 3월 7일생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선방직에서 일하던 여공이었다. 직장이 문을 닫자 고향 화순으로 길을 나섰고, 마침 화순으로 향하던 시민군 버스를 만나 차에 올랐다.



비한 충격에 숨졌다.

광주와 화순의 길목인 지원동 주남마을을 지나던 버스는 갑자기 울려 퍼진 총성에 멈춰 섰고, 주남마을을 뚫고 있던 계엄군은 시민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김춘례씨도 무자비한 총격에 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

북구어린이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회장 장서영·사진)에서 운영 중인 광주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 447개소를 위생·안전·영양관리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225개의 어린이급식



안전팜핑을 개발’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장 취임

안수민(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장이 최근 취임했다.

안 본부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발맞춰 취임식을 생략하고, 광주 서구 장애인복지관에 농산품 300세트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안수민 본부장은 “최근 장애인 복지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식사를 할 수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물품을 준비했고, 더하여 개학연기로 인해 공



관리실장, 자격부과선임실장 등을 역임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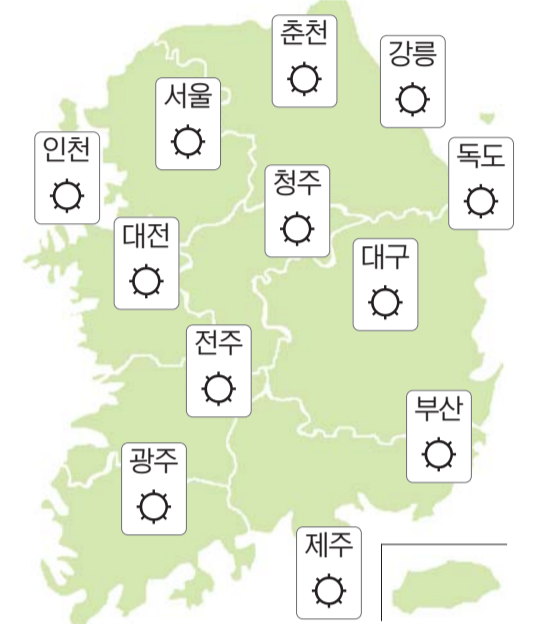
해돋이	05:41	달뜨기	12:09
해지기	19:18	달지기	01:47

5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7/28	보성	맑음	13/25
목포	맑음	15/23	순천	맑음	15/26
여수	맑음	15/22	영광	맑음	15/25
나주	맑음	14/26	진도	맑음	14/22
완도	맑음	15/24	전주	맑음	17/30
구례	맑음	14/29	군산	맑음	16/25
강진	맑음	14/25	남원	맑음	15/29
해남	맑음	13/23	흑산도	맑음	13/20
장성	맑음	14/27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북)	1.0~2.0	1.0~1.5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서)	0.5~1.5	0.5~1.5	
	면바다(동)	0.5~1.0	0.5~1.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14 13:35	07:55 20:06
여수	09:22	02:51
	21:33	15:26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2(토)	3(일)	4(월)
16/27	16/23	15/26
5(화)	6(수)	7(목)
12/25	13/27	14/25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일 (음 4월 9일 甲辰)

☎ 010-9790-8237

子 36년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열어 두자. 48년생 첫 눈에 마음에 든다고 길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자. 60년생 황재수가 보인다. 72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84년생 발상에 있어서 유연하다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96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32, 82

卯 39년생 완급 조절을 하라. 51년생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 효과를 거둔다. 63년생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긴다. 75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 되리라. 87년생 과거사가 현재까지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덮어둘 일이 있다면 끝까지 신경 써라. 99년생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2, 96

午 42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54년생 과욕은 망신살을 부르는 법이니 심신을 안정시켜야 할 일이다. 66년생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78년생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라. 90년생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02년생 사정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 하자. 행운의 숫자 : 29, 61

酉 33년생 새로운 인연은 길사를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리라. 45년생 최후의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려라. 57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준비하라. 69년생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비우면 채워지리라. 81년생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 불리해진다. 93년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48, 90

丑 37년생 갈수록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다. 49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61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매우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73년생 좋은 인연과의 뜻깊은 일이 있을 것이다. 85년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7년생 체계적이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8, 60

辰 40년생 지나치다면 미찰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52년생 제안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64년생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느니라. 76년생 선후를 정하지 않으면 실속없이 분주해질 수 있다. 88년생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이익이 있다. 00년생 잠된 뜻을 알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 : 10, 88

未 31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를 낳으면서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43년생 선행 조건부터 짚어야 풀리는 문제이다. 55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아예 부러지는 것 보다 낫다. 67년생 조금만 더 버티 낸다면 견고해질 것이다. 79년생 중심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91년생 재물운의 기회가 오면 수용하라. 행운의 숫자 : 16, 57

戌 34년생 돌보일 것이다. 46년생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니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58년생 중요함을 놓칠 수도 있는 운수이다. 70년생 판세에 맞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속출한다. 82년생 바빠서 시간을 쪼개어 쓰느라고 애를 먹겠다. 94년생 여태까지 했던 것은 헛수고였으니 다시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5, 85

寅 38년생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50년생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해야 하겠다. 62년생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니라. 74년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한다. 86년생 적용이 적절하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98년생 재물운이 왕성해 보이니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행운의 숫자 : 95, 87

巳 41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53년생 기다려왔던 것이 들어오지만 쓸 곳이 더 많다. 65년생 상대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77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허점을 날개 할 수다. 89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 버린다면 만사가 길해진다. 01년생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역할을 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1, 84

申 32년생 어느 한 순간에 급속히 변하고야 말 것이다. 44년생 대범하게 행동했을 때 수확도 클 것이다. 56년생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68년생 가운데에 끼어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80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92년생 활용만 잘 한다면 대박이 날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 51

亥 35년생 숫구쳐 오르는 기세의 운로이다. 47년생 대단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59년생 실효적인 관계를 지속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나중에 자리를 잡는다. 83년생 지금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95년생 의심스런 인연이니 경계심을 버리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6, 68